

내 작품속의 여인 - 송은영

작품 속에 두 여인이 있다. 그들은 서로 대면을 하고 있거나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명의 모습으로서 거울 앞에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과 그의 거울 속 환영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 속에서,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은 흑백 사진이 실제로 거울 위에 인화가 되었고,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은 유화로 캔버스천 위에 그려졌다. 그리고 회화로 표현된 얼굴은 필요한 부분이 오려져 거울 위에 붙여져 있다.

- 송은영

흔히들 영화나 광고에서 흑백 이미지는 과거나 비 현실을, 반면 컬러 이미지는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대중적 코드로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두 모습을 읽자면 서로 도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거울에 비춰진 환영이 흑백 이미지여야 하지만 컬러로 그려져 있고 거울 앞에 존재하는 인물의 모습은 그 반대이다. 왜 그렇게 나타냈는지를 설명하자면, 본인이 찍혀진 단체사진이나 일반 스냅사진을 볼 때마다 오래 전부터 항상 가졌던 의문에서

출발해야겠다. '왜 항상 내 얼굴은 다른 이들의 얼굴과는 다른 무엇이 느껴지는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작용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음이 궁금했다. 이런 현상은 '나'에게 제한된 느낌이 아니라, 자신을 사진이나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각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 사람만이 아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육체로서의 사람보다 더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거울 속의 환영인 작가 자신의 모습을 컬러로, 그리고 주관성과 직관성이 표현되어지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즉 그려진 모습은 자신만이 느끼는 자신의 모습과 내적 자아이다.

반면 현존하는 육체로서의 '나', 타인으로부터 보여지는 '나'는 보는 사람들의 행동양식, 성격, 기운 등이 묻어나고 반영되어지게 된다. 그러한 '나'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거울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비춰지기도 함으로 분명하지 않게 느껴진다. 거울 위에 인화된 흑백 이미지의 모습은 이런 객관적이지만 불확실한 자아의 모습을

